

# 국민연금, 2025년 역대 최고 수익률 18.8%

### 231조6000억원 운용수익 기록... 기금 적립금 1458조원

국민연금공단이 2025년 한 해 동안 231조6천억 원의 운용수익을 거두며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기금 적립금이 1,458조 원으로 집계됐고, 연간 수익률은 18.82%(금액가중수익률·잠정)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이며, 누적 연평균 수익률도 8.04%로 처음 8%를 넘어섰다.

이번 운용수익금 231조6천억 원은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지급액(약 49조7천억 원)의 4.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외 주요 연금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나타냈다. 일본의 GPF는 12.3%, 노르웨이 GPF는 15.1%, 네덜란드 ABP는 -1.6%, 캐나다 CPPIB는 7.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이 82.44%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해외주식 19.74%, 국내채권 0.84%, 해외채권 3.77%, 대체투자 8.03% 등 모든 자산군에서 양호한 성과를 냈다.

특히 국내주식은 인공지능(AI)·반도체 중심 기술주 강세와 자본시장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큰 폭으로 상승해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해외주식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도 AI 등 기술주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국내채권은 연중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기 회복 흐름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채권도 미국 기준금리 인하나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치가 상승해 수익률 개선에 기여했다. 대체투자는 자산 평가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되며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



국민연금공단이 2025년 한 해 동안 231조6천억 원의 운용수익을 거두며 기금 설치 이후 최고 성과를 기록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산배분 다변화, 성과보상체계 개선 등 운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역대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며 “특히 국내 증시 상승의 혜택이 컸다”고 밝혔다. 이

어 “기금 규모 확대에 맞춰 운용 역량 을 더욱 강화하고, 유연한 자산배분과 투자 전략, 지역 다변화를 통해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 제조 중소기업 혁신마우처 지원

### 전북중기청, 최대 5000만원... 13일까지 수요기업 2차 모집

전북중기청이 ‘중소기업 혁신마우처 지원사업’ 2026년 2차 수요기업 2차 모집을 2월 27일부터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중소기업 혁신마우처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마우처를 기업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공모는 전체 5개 유형 가운데 ‘지역성장마우처’ 유형을 모집하는 것으로, 총 5억7천만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일반마우처, 탄소중립마우처, 중대재해예방마우처는 1차 공모를 마쳤으며, 재기신청팅 유형은 현재 접수 접수 중이다.

지역성장마우처는 지원 대상에 따라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마우처(4억원) △지역자율형마우처(0.9억원) △지역소공인성장형마우처(0.8억원) 등 3가지로 나뉜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마우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중소기업

성장모델인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하며, 현장평가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이 이뤄진다. 레전드50+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화산업 전략에 맞춰 프로젝트를 기획하면 중기부가 이를 선정·지원하는 협업형 사업이다.

지역자율형마우처는 지역 산업 회복과 제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전북중기청은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단계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약 9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새롭게 설계된 지역소공인 성장형마우처는 제조설비 부족 등으로 기술·제품 개발 여건이 취약한 지역 소공인의 사업화를 돕기 위한 사업이다. 기업당 최대 8천만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새만금 해양레저 산업’ 미래 성장 전략 모색

### 클러스터 조성 토론회 열려

전북 해양레저 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새만금 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군산 에이브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해양융합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관련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토론회는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전북문화관광재단, 미래전략 전북위원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공동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해양레저·마리나 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지자체 및 혁신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업 확장 가능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해양경제



전북 해양레저 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새만금 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군산 에이브호텔에서 열렸다.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

졌다. 기존 조선·항만 중심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마리나, 해양관광, 해양

/오상근 기자

모빌리티, 친환경 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시스템이 결합된 융합 산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강조했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해양레저 산업의 현황과 AI 시대 전망, 해양레저 클러스터를 통한 신성장 전략, AI 중심 해양레저 허브로서의 새만금 발전 방향 등이 제시됐다. 발제자들은 새만금의 입지적 강점과 정책적 기반을 활용해 친환경·스마트 마리나 도입, 디지털 기반 해양레저 산업 육성, 제조·서비스 연계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조선·해양 기술·관광·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새만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행 전략과 정책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해양레저 산업이 AI, 제조, 관광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전북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오상근 기자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장애인 감면단말기 무상 보급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단말기 443대를 무상 보급한다. 신청은 3일부터 시작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보급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지를 둔 장애인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단말기를 수령한 뒤 지문 등록을 완료하면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간편 신청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톨게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관내 톨게이트를 방문해야 했지만, 절차가 개선되면서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톨게이트 방문을 통한 신청도 기존과 동일하게 가능하다.

지문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내 지사인 전주, 부안, 무주, 논산, 진안, 보령 지사 또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 전북은행, 3월 말까지 해외송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

전북은행이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내·외국인 고객의 송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송금은 JB글로벌 킷송금! 속으로 킷하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며, 이벤트 기간 동안 JB글로벌 킷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송금액과 관계없이 해외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또한 최대 90%의 환율 우대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JB글로벌 킷송금은 수취 국가의 현지 통화로 즉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네팔, 필리핀 등 총 69개국으로 송금할 수 있어 해외 체류 가족이나 지인에게 빠르게 자금을 보내야 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하다.

# 전북농관원, ‘완주농업경영체민원센터’ 운영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전북지원이 3월 3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완주군 농업인을 위한 ‘완주농업경영체민원센터’를 운영한다.

민원센터는 공익직불 신청 기간에 맞춰 3개월간 완주군농업기술센터(고산면)에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민원센터 운영은 완주군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전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접근성을 높여겠다는 취지다.

/오상근 기자

# 전북농협, 축산경제 활력 제고 전략회의 개최

전북농협이 지난달 26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2026년 전북농협 축산경제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열고 축산경기 위기 극복과 축산인 가치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관내 축협 지도·경제 상무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최근 ASF(아프리카돼지열병)와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사료값 등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전북 축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이 공유됐다.

/오상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